

문화강국의 밑거름된 정부 자료실

프랑스의 '라 도큐망타시옹 프랑세즈'

최연구

《한겨레21》 칼럼니스트 · 마르느 라 발레대학 국제관계학 박사

료 해석의 두 과정으로 나뉜다. 자료 해석이야 연구자 개인의 역량문제지만 사실 연구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료의 수집이다. 훌륭한 연구의 출발점이 방대하고 체계적인 자료에의 접근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자료를 많이 갖추고 있는 나라가 훌륭한 석학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자료가 많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가, 그리고 자료들이 얼마나 체계화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프랑스의 자료 보고(寶庫)인 '라 도큐망타시옹 프랑세즈(La Documentation Francaise ; 이하 DF로 줄임)'의 진가가 돋보인다.

프랑스가 사랑하는 DF는 자료실인 동시에 대중도서관이며 또한 전문서점이기도 하다.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니라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이며, 어떤 통계자료든지 어떤 보고서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서점이다. 가령 유럽 각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려는 평교사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매출액 자료나 마케팅 전략 보고서를 구하려는 중소기업인 아니면 아시아, 아프리카 오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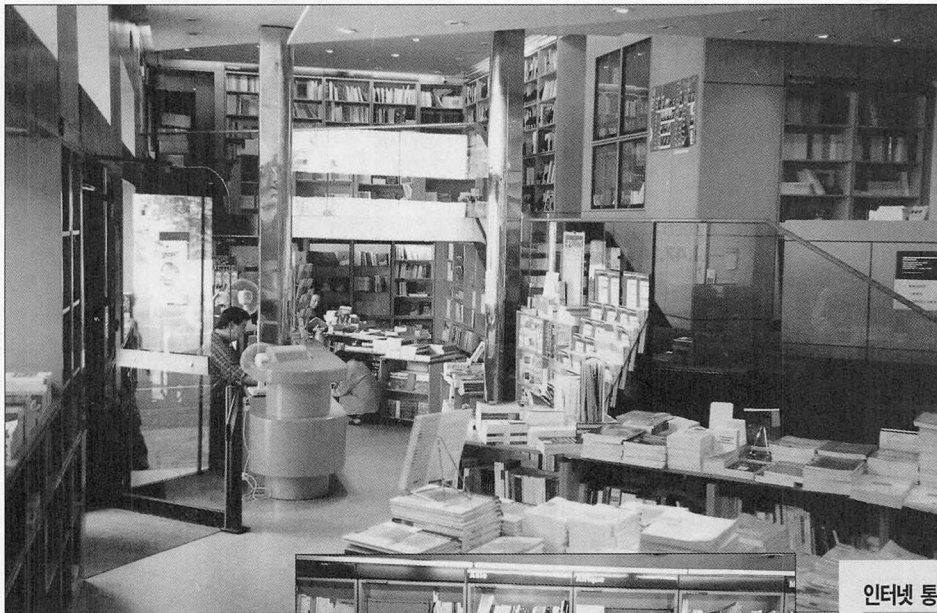
한 나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지역연구자 같은 사람이 가장 먼저 들러야 할 곳이 바로 이 DF이다.

'프랑스 문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DF는 총리실 산하의 행정 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정부 간행물이나 공공 부문 보고서를 주로 취급하는 곳이다. 하지만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정부 간행물만 취급하는 공보처 같은 곳이었거나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우선 프랑스의 국책연구기관들은 연구에 있어서 철저히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어 자유로운 연구가 가능한 곳을 알아야 한다. 프랑스 최고의 공공연구기관 CNRS(국립과학연구센터)에서 나온 연구보고서들을 시중의 전문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나온 책들과 견주어볼 때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과정부 시절에도 좌파적인 이론보고서가 나올 때가 많고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요컨대 프랑스에서의 국책연구소는 국가가 연구자들에게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조해주고 장려해주는 수단일 뿐이지 국가정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이지는 않는다. 국가는 학문을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장려하는 기구라는 것이다.

출판과 서점도 겸해

DF역시 마찬가지다. DF는 세가지 사업을 기본영역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실·출판·서점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DF는 프랑스와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제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갖추고 있는 자료실



· 세느강변의 고풍스런 건물숲 속에 있는 DF서점 내부는 초현대적인 인테리어로 단장돼 있다(위).
· 간행물은 아시아·아프리카·유럽 등 지역별, 주제별로 세밀하게 분류해 놓았다.



인터넷 통신

미국도서평론가협회 선정 최우수도서 5종

《착한 여인의 사랑》·《아름다운 마음》 등

미국도서평론가협회(NBCA)는 1998년 최우수도서로 소설 부문에 엘리스 먼로의 《착한 여인의 사랑(The Love of a Good Woman)》을, 비소설 부문에 필립 고레비치의 《우리는 내일 당장 가족과 함께 살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We Wish to Inform You That Tomorrow We Will Be Killed with Our Families)》를, 전기 부문에 실비아 나자르의 《아름다운 마음(A Beautiful Mind)》을, 평론 부문에 게리 기딘즈의 《재즈의 비전(Vision of Jazz)》를, 시집 부문에 메어리 판소트의 《새잡이(The Bird Catcher)》를 각각 선정했다.

엘리스 먼로의 《착한...》은 비빌·사랑·배신 등 삶의 다양한 요소를 다룬 단편소설 9편을

엮었다. 표제작은 한 검안사의 익사로부터 시작한다. 작가의 시선은 검안사가 물에 빠지면서 일으킨 잔물결을 따라 사체를 발견하는 한 소녀에게 이르렀다가 다시 분노 속에 죽어가는 한 여인과 젊은 간호사에게로 이어진다.

비소설 부문의 《우리는...》는 르완다의 후투족과 투치족간의 대량학살 경쟁을 다룬 책이다. 뉴욕의 기자인 고레비치는 수차례 르완다를 방문해 가족이 살해당한 투치족 의사, 수백만의 난민을 죽음으로부터 구해 낸들러를 떠올리게 하는 호텔 직원, 투치족 초등학교 대량 학살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르완다의 추기경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류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다. 전기 부문의 《아름다운 마음》은 199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존 포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년 전 프랑스 사회학의 거장 에밀 뒤르켐은 지성사에 길이 남을 명저를 내놓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과학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자살론》이다. 뒤르켐은 자살이 개인의 동기가 심리문제가 아닌 사회통합이나 연대와 관련된 사회적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이 '자살론'의 의의는 그가 이 연구를 통해 사회현상이 개인의 바깥에 외재하는 엄연한 사실임을 주장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학 연구에 사

회통계라는 실증적, 객관적 자료를 처음으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그는 자살이라는 사회적 사실이 사회통합의 정도와 관련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해 당시 각국의 자살을 통계를 사용했다. 이로부터 사회과학 연구에서 경험적인 통계자료나 자료의 활용은 중요한 방법론으로 자리잡게 된다.

방대하고 체계적인 자료

사회과학의 모든 연구는 자료 수집과 자

인데, 1945년 이후 세계에 대한 중요한 자료와 역사문헌들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공공도서관이다. 이 자료실은 현재 약 21만 권의 단행본 자료를 갖추고 있고 무려 2316 종에 이르는 언론매체를 소장하고 있다. 신문만 하더라도 프랑스 신문 26종과 외국 주요신문 41종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다소 전문성을 띠고 있는 자료실임에도 불구하고, DF자료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15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DF지역 서점은 자료실과 같은 건물에 붙어 있다. 자료실에서 찾아본 자료 중 꼭 필요한 것은 DF서점에서 살 수 있으니,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체계다.

파리 7구의 세느강가에 자리잡은 DF서점은 바깥에서 보면 세느강변의 고풍스런 건물숲에 묻혀 있어 잘 눈에 띄지도 않는다. '라 도큐망타시옹 프랑세즈'라는 조그마한 간판이 하나 덩그러니 붙어 있을 뿐이다. 볼테르 강독(Quai Voltaire) 29번지, 주소가 참 특이하다. 세느강변의 도로에는 무슨 무슨 거리라는 주소가 붙지 않고 무슨 무슨 강독(부두)이라는 주소로 되어 있어 훨씬 낭만적이다. 인류를 지식과 계몽의 길로 인도하고자 했던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정신이 DF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하다.

밖에서 보이는 거무튀튀한 석조건물에서 느껴지는 고풍스러움과는 대조적으로 DF서점 안에 들어서면 인테리어가 초현대적이다. 서점은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층이 한눈에 들어오는 듀플렉스(duplex)식 구조이다. 아래층에는 주로 잡지나 정기간행물,

신문 등이 있고 윗층에는 간행물을 주제별, 지역별로 분류해 놓았다. 윗쪽의 한켠에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 등 지역별로 그리고는 나라별로 간행물들이 세분화되어 있어 자료찾기가 편리하다.

공공 간행물로는 프랑스 통계국(INSEE), 상하원 의회, 프랑스 중앙은행, 파리 시청,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유럽연합, 세계은행, 유네스코 등에서 나온 보고서 통계, 연구서를 모두 갖추고 있는데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DF서점은 4번 자료를 구입하면 5번째는 5% 할인해 주는 단골회원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고풍스런 건물 속에 초현대식 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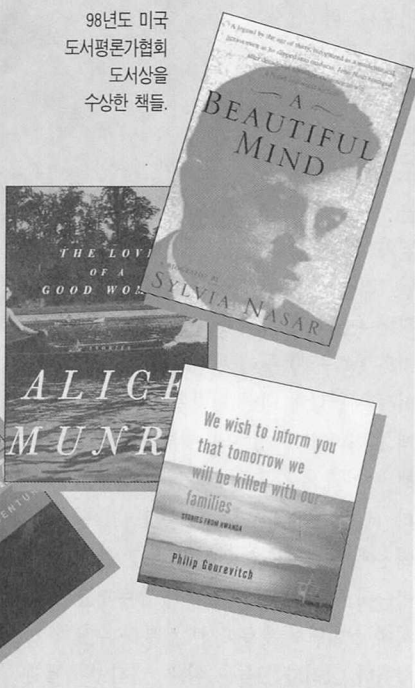
DF는 서점, 자료실의 운용과 아울러 독자적인 출판사업도 하고 있는데 1993년 이래 1216호에 이르는 잡지들을 간행했고 1367종의 단행본을 냈다. 특히 DF에서 나오는 정기간행물 '경제문제'나 '정치사회문제'는 세계 각국의 경제·정치·사회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격조 있는 연구서로서 연구자들이 반드시 참고하는 필독서다.

자료실·출판·서점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DF는 자료의 체계화, 자료 이용화의 대중화에 성공한 모범적인 사례로 오늘날 문화강대국 프랑스의 큰 자랑거리 중 하나다. ❖

브스 내쉬를 다룬 전기로 천재성과 광기를 동시에 지닌 한 학자의 삶을 잘 다뤘다는 평가. 평론 부문의 《재즈의 비전》은 700쪽이 넘는 분량에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재즈의 음악적, 문화적, 역사적 공과를 명쾌하게 다뤘다.

플리처상·전미도서상·포크너상 등과 함께 미국의 주요 도서상 중의 하나인 미국도서평론가협회 도서상은 1974년 제정됐다. 700명 이상의 도서평론가가 매년 5개 분야로 나눠 전년도 최우수도서를 선정해왔는데, 그간 토니 모리슨의 《솔로몬의 노래》, 조이스 케롤 오츠의 《검은 물》, 레이몬드 카버의 《대성당》, 앤 타일러의 《우연한 여행자》 등이 수상한 바 있다.

(김연수)



98년도 미국 도서평론가협회 도서상 수상한 책들.



역사를 움직인 풍수 이야기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한 또 하나의 권력, 풍수!



정중수(사학자, 문화재관리국 학예연구관) 지음
 ✦ 신국판/248쪽/8,500원

왜 권력자들은 그토록 풍수에 집착했을까?

- 풍수지리의 문제로 고려 시대는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 이성계는 왜 천도를 서둘렀을까?
 풍수에 집착했던 집권층의 새 왕도 건설에 얽힌 비화!
- 서울은 과연 하늘이 낸 천하의 명당일까?
 말인들이 왕위를 승계한 경우는 여섯 명에 불과했던 조선의 운명!
- 단종의 죽음은 천모 현덕 왕후의 무덤 자리 때문이리는데?
- 자신의 왕릉을 짓기 위해 백성들의 목숨을 희생시킨 세종은 성군인가 폭군인가?

곳의 사회사

오랫동안 민중과 희노애락을 같이 해 온 곳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
 ✦ 주강현 지음/신국판/256쪽/5,500원

시장의 사회사

시장의 역사 및 그 구조와 기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려 준다.
 ✦ 정승모 지음/신국판/216쪽/5,000원

집의 사회사

우리의 주거 문화에 깃든 민속적 전통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
 ✦ 강영환 지음/신국판/320쪽/6,500원

마을 신앙의 사회사

우리 고유의 마을 신앙들을 본래의 모습 그대로 되살려 내기!
 ✦ 이필영 지음/신국판/양장본/400쪽/7,500원

옛무덤의 사회사

고대의 무덤 양식을 통해 선조들의 생활사와 죽음관을 조망한다.
 ✦ 장철수 지음/신국판/양장본/280쪽/7,500원

복수와 형벌의 사회사

개인과 집단, 국가 사이에서 복수와 형벌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
 ✦ 전제경 지음/신국판/양장본/320쪽/8,000원